

Dec 10, 2017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35장 (큰 영화로신 주)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125장 (통125장)	
Prayer 기 도	라태한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마25:14-30	
Choir 성가대찬양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Sermon 말 씀	김 원기 목사	
‘ 충성된 기다림 ’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선교회 월례회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룻기3:1-13 ☐ 본문: 보야스가 룻을 만나다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 구역장: 최영애권사	인도: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김경식장로	인도: 사라틀집사
☐ 무 - 구역장: 김봉채권사	인도: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새가족부	인도: 김원기목사
☐ 실버 - 구역장: 정선옥사모	인도: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말씀대로”(요15:10)
- 이달에 입을 성경은 에스라서입니다.
- 2017년 12월 행사
 - 10일 - 성서주일, 선교회월례회
 - 17일 - 2017년 공동의회, 송년모임
 - 24일 - 성탄절축하연합예배
 - 25일 - 성탄축하새벽예배(5시30분)
 - 31일 -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송구영신예배(밤 11시부터)
- 김유련 권사님 12월15일 수술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17일) 저녁 김용운·김경배 집사님 댁에서 사랑의 동산교회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주소: 20439 Via Medici, Porter Ranch, CA 91326
- 오늘은 교육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성승록권사12월16일, 장정남권사12월23일, 라계용권사12월30일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 교우동정-장정관간사님 가정 자녀결혼식(장원)으로 모국 방문중.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 |
|-------------------|------------------|
| ☐ 기도 : 1부- 합심기도 | ☐ 2부- 이화정장로 |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 2부- 황동균집사 |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 |
|-----------------------|--------------|
|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 전도사 : 황창원 |
|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 협동장로 : 이화정 |
| ☐ 음향간사 : 장정관 | |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EM헌금 : \$
감사헌금 : \$	
자녀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마25:1-13 준비된 기다림

길거리 케스팅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가온 행운을 말한다. 그래서 스타가 되었고 성공하게 된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생겨난 말이 있다. 즉 '계획된 우발성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이라는 말이 있다. 소위 우연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이 이론은 '행운이란 우연이 아니다.'(Luck is no accident)라는 것이다. 즉 우연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연이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다. 이들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기름을 준비하라(3-4)

-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많다.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다. 이것이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였다. 미련한 처녀들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다. 준비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이다.

한편 4절의 '그릇에' 라는 말과 8절의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표현으로 기름의 여분의 것이다. 당시 등불에 기름을 담은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라고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혹은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다.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한데, 신앙적인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제도와 형식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안식일 준수, 십일조 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형식이다. 많은 경우 이런 형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이다. 물론 형식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내용이 있는 신앙은 위기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신앙이 오니까 드디어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났다. 우리 역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고후4:8-9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